

금투협회장 선거 1강3약 구도... 35년 증권맨 나재철 우세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現 금융사 대표, 현장경험 풍부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금융당국 등 관업무 경험 강점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

금투협 본부장직 지내 '협회경험'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

현직 금융센터 '영업맨'

금투자협회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증권업계의 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현직 증권사 대표인 나재철 사장의 1강 구도가 예상된다.

금투자협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추위)는 지난달 19일부터 4일 오전 10시 까지 협회장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최종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59),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65),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63),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60) 등이다.

우선 나 사장은 35년간 증권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그가 유력후보로 꼽히는 것 역시 현직 증권사 대표로 있으면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점이다.

나 사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행동하는 협회", "제대로 일하는 금투협"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그는 "협회 혁신 테스트

금투자협회장 후보자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주요공약

- 자본시장 역할 강화
- 미래역량 확보
- 회원사 정책건의의 확대
- 선제적 자율 규제
- 협회 혁신 TF 추진

주요경력

- 1985년 대신증권 입사(공채 12기)
- 2004년 강서지역본부장 상무
- 2005년 강남지역본부장 전무
- 2008년 리테일사업본부장 전무
- 2009년 출세사업본부장 전무
- 2010년 대신증권 부사장
- 2010년 기획본부장 겸 출세사업단장
- 2011년 기업금융사업단장 겸 인재역량센터장
- 2012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현)
- 2017년~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이사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주요공약

- 자본시장의 혁신과제, 세계 개편 등 차질없는 추진
-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급진
- 협회조직의 신속한 혁신과 통합

주요경력

- 1978년 한국은행
- 1999년 금융감독원 증권·비은행·은행감독국장, 뉴욕사무소장
- 2006년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
-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 은행장
- 2012년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증권) 부회장
- 2014년 현대증권(현 KB증권) 상근감사위원
- 2016년 KTB투자증권 사외이사
- 2018년 KTB자산운용 부회장(현)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



주요공약

- 혁신·내부결속으로 협회정신화
- 증권업계와 협업으로 제도개선
- 회원사 직원에 학습과 해외 진출 지원
- 협회재원의 회원사의존도 축소

주요경력

- 1981년 삼보증권(대우증권 전신) 조사부 입사
- 1999년 대우증권 투자전략부 부장
- 2002년 우리증권 Research Center장
- 2006년 동부증권 Research Center장
- 2008년 금투자협회 자율규제, 경영전략본부장
- 2009년 우리투자증권(현 NH증권) 상품전략 본부장
- 우리투자증권 Research 본부장
- 2013년 우리선물(현 NH선물) 대표/사장, 고문
- 2014년 IBK투자증권 대표/사장

서재익 하나금융투자 전무



주요공약

- 금투자협회의 영향력 강화
- 투자 상품 개발 및 다양화
- 해외주식투자결제시스템개선
- 韓 시장 글로벌 비중 확대 기여
- 글로벌 투자에 세계 혜택 부여
- 규제와 금융투자자 보호 등 투자 금융 선진화 기여

주요경력

- 2008년~2012년 삼성증권 SFC 멘토
- 2017년~2019년 뉴질랜드상공회의소 어드바이저
- 2018년~2021년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포스(TF)를 추진하겠다"면서 "회원사 지원중심의 효율적 조직 구축, 인사 및 복지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회원사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공모리츠 상장 및 세계 관련 지원,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세계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금융당국 등 관(官)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강점이다.

정 부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꼈다"면서 "감독당국과 금투업계를 모두 경험하고 유용한 네트워크를 가진 준비된 역량과 실행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회의 내부혁신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한 성장정책 ▲시장원리 존중 및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혁신과 경쟁 여건 조성 등을 공약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여간 금투자협회 본부장 직을 지냈다. 실제 협회에서 일해 본 후보자다.

신 전 사장은 "당시 금투자협회 설립과정에서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3개 노조를 소통을 통해 위로금 지급 없이 6개월 만에 통합했다"면서 "과감한 조직제도개편·인사조

치로 조직을 일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완화, 신사업 강화, 세계 개편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전무는 현재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맨이다. 업계에서는 생소한 후보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제 증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무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수없이 보고 느꼈던 투자자 보호와 협회 회원사를 대변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그는 회원사 회비 인하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들고 나왔다. 또 그는 "금투자협회의 글로벌 전략 기능 신설을 통해 한국 시장의 글로벌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위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회원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위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후보가 정해지면 금투협 회원사인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부동산회사 등 296개사가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정회원사 과반의 출석으로 임시총회가 열리며 출석한 정회원사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철길따라 들어선 새 아파트 '수요 집중'

경전철 신림선 '보라매e편한세상' 착공시작 후 1년간 17.02% 올라

하남선 '하남풍산아이파크5단지' 84㎡물량 평균 매매가 12.5% ↑

착공을 시작한 철도망 인근 새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철도망 개통 가운데서도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경우 사업 무산 등의 위험성이 차단된 호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통 여건 개선은 기본계획 발표, 착공, 개통 순으로 진행되며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착공 단계는 기본계획 발표 시기보다 확실한 호재로 인식되며 집값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경전철 신림선 인근 '보라매e편한세상' (2010년 7월 입주) 84㎡A타입은 11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이 8억6250만원이다. 이 단지는 2015년 6월 기본계획 확정 고시 직후 1년간 평균매매가격이 1.69%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2017년 5월 착공을 시작하고 1년 동안은 무려 17.02% 올랐다.

2022년 개통을 앞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 주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남풍산아이파크5단지' (2008년 7월 입주)는 현재(11월 기준) 84㎡A타입 평균매매시세가 6억8500만

〈철도망 착공 수혜받는 신규 분양단지〉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 시기	건설사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9~132	1715 (1101)	12월	HDC현산 SK건설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59~114	799 (316)	12월	포스코건설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49~84	799 (507)	12월	두산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일대	아파트 : 84~112 오피스텔 : 43~46	아파트 : 803 오피스텔 : 150	12월	현대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각 사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2014년 8월 하남선 착공 이후 1년간 84㎡의 평균 매매가격이 12.5% 올랐다. 2013년 11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1년 동안 평균매매가격 상승률(1.1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달에 분양하는 역세권 신규단지들로 HDC현대산업개발·SK건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1715가구 중 39~123㎡ 11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최근 착공을 시작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두암지구역(가칭)과 교대역(가칭)이 인접해 있다. 또한 단지에서 직선으로 1.5km 거리에 광주역 및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금남로4가역·문화전당역이 위치해 있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가구 중 59~114㎡, 316가구를 일반분양한

다. 단지 인근으로 착공에 들어간 신림선 경전철 서울지방병무청역(예정),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예정)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이외에도 반경 1km 이내 지하철 3개 노선이 위치해 있다.

두산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799가구 중 49~84㎡ 5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인근으로 공사가 한창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산곡역(예정)이 도보권 내 들어선다.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일대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84~112㎡ 아파트 803가구와 43~46㎡ 오피스텔 150실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가 인접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50만원 이상 결제유저 12%→17% 증가"

IPO 간담회

소셜카지노게임 서비스 미투젠

SK전망 올 매출액 1007억 전망 상반기 매출 444억, 영업이익 195억

미투젠이배당성향(전체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 30%를 매년 이행하겠다고 자신했다.

미투젠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게임 라인업과 시장선점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약하겠다"며 코스닥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미투젠은 소셜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는 홍콩 기업이다.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미투온에 인수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2012년 첫 번째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Slot-Neverland' 출시하며 현재 캐주얼카드를 포함한 3개 장르에서 42개 이상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 장르는 3개로 구분된다. 신규 캐주얼 게임 '트라이픽스'와 클래식 카드 게임 '솔리테르', '소셜카지노'다. 특히 트라이픽스는 출시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6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838억원, 영업이익 3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4억원, 195억원이다. 성종원 미투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배리 라우 미투젠 대표이사가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자사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결제 유저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매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 유저 수는 2018년 1분기 기준 12% 정도였으나, 올해 3분기엔 17%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올해 미투젠의 매출액 10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게임 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는 주 고객층 70%가 북미 지역에 편중돼 있으나 중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손창욱 미투온 대표이사는 "3년 단위로 신작을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해왔다"며 "북경에 연구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허가(판호)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예정가는 2만5000원에서 2만9400원으로 책정됐다. 5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10~11일 청약을 거쳐 오는 23일 코스닥에 입성한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가 맡았다.

/송태화기자 avin@